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년 08월 32권 3호

pISSN 1229-8328
J Korean Med Classics 2019:32(3) 073-083
https://doi.org/10.14369/jkmc.2019.32.3.073

JKMC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喜傷心의 病機에 대한 고찰

[1]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講師 · [2]韓醫學古典硏究所 博士後硏究員
安鎭熹[1, 2*]

A Study on the Mechanism upon Joy Impairs the Heart

Ahn Jin-hee[1, 2*]
[1]Lecture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Joy impairs the Heart'.

Methods : 『*Huangdineijing*』 was searched in relation to 'Joy' and 'Heart', then Joy was divided into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joy. After examination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e mechanism of 'Joy impairs the Heart' was drawn out.

Results : 1. Excessive Joy not only relaxes Qi(氣), but also disperses Shen(神).
2. Impairment of Heart damages heart locally and Impairment of Yang not only damages Qi or Shen focally, but also damages Yang of the whole body and the degree of damage is thought to be more extensive than "Joy impairs the Heart".
3. "Too much joy and pleasure can cause the Shen(神) to scatter and not remain stored." not only relaxes Qi, but also disperses Shen(神), and the degree of damage is less than "Sudden joy damages Yang".

Conclusions : Excessive or Sudden Joy impairs the Heart by disturbing Heart's property of maintaining Taiyang by scattering Shen(神) or not maintaining high Yang density. Forced expression of Joy impairs the Heart by relaxing and stagnating Qi.

Key words : Joy(喜), Joy impairs the Heart(喜傷心), Heart(心), Shen(神), Seven Emotions(七情)

* Corresponding author : Ahn Jinhee.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9183, Fax : +82-2-961-9229 Email : jini@khu.ac.kr
Received(July 24, 2019), Revised(August 1, 2019), Accepted(August 5,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Ⅰ. 序論

韓醫學에서 七情은 喜怒憂思悲恐驚을 가리키며, 五志는 怒喜思悲恐을 가리키는데, 七情과 五志는 모두 五臟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사람은 五藏을 두어 五氣로 변화시켜서 기쁨, 노여움, 슬픔, 근심, 두려움을 만든다."[1]라고 하였다. 한편 五臟이 五氣로 變化하여 발생시킨 감정은 과도할 경우 五臟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이에 대해 『素問·陰陽應象大論』과 『素問·五運行大論』에서는 "노여움은 肝을 傷하게 한다.", "기쁨은 心을 傷하게 한다.", "사려는 脾를 傷하게 한다.", "근심은 肺를 傷하게 한다.", "두려움은 腎을 傷하게 한다."[2]라고 하였다. 五志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감정에 속하는 '喜'는 과도하지 않고 적절하게 발현되면 氣血을 조화롭게 하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 정도가 過할 경우에는 "기쁨은 心을 손상시킨다."[3]라고 하였고, 기쁨의 감정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폭급하게 기뻐하면 陽을 손상시킨다."[4]라고 하였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神이 흩어져 간직되지 않는다."[5]라고도 했는데, 傷心과 傷陽이 같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神의 손상이 傷心 혹은 傷陽과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病理機轉이 불분명하였다.

"喜傷心"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論喜傷心」[6]에서는 喜가 정서를 펴지게 하고, 氣血을 조화롭게 하며, 질병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양날의 검처럼 병들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가 쉽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했다. 「論情志致病因素-喜」[7]에서는 喜가 정상적인 정서활동에서 발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어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喜傷心析疑」[8]에서는 怒喜思悲恐 五志 중에서 喜傷心은 오해되기 쉽다면서 실제 臨床例를 통해 喜傷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上記 논문들에서 喜傷心의 病機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喜傷心"만 단독으로 다룬 한국 논문은 없었고, 七情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喜傷心"을 논의하였다. 「東醫寶鑑에 나타난 七情의 대한 연구」[9]에서는 『東醫寶鑑』 내에서 '喜'와 '笑'를 포함하는 조문의 病機를 病因과 症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喜'가 火와 같이 위로 오르는 기운과 연관되어 上焦의 心肺를 손상한다고 해석하였다. 「七情에 관한 문헌적 고찰」[10]에서는 부분적으로 喜의 生理, 病理, 症狀, 診斷, 治法을 다루었으나, 서로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고찰하여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기 보다는 사실을 열거하는 측면이 많았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기쁨의 감정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생리적(긍정적)인 喜와 病理的(부정적)인 喜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心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핀 뒤에 생리적인 喜와 병리적인 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喜傷心의 病機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本論

1. 喜란 무엇인가

1) 생리적(긍정적) 喜

喜라는 감정이 언제 발현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소망하는 일을 이루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11] 욕구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3. "人有五藏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4, p.238. "怒傷肝.", "喜傷心.", "思傷脾.", "憂傷肺.", "恐傷腎."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4, p.238. "喜傷心."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3, p313. "暴喜傷陽."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8. "喜樂者, 神憚散而不藏."
6) 蔡良, 張虹. 論喜傷心. 世界最新醫學信息文摘. 2018. 18(86). pp.211-213.
7) 聶紹通. 論情志致病因素-喜. 中外醫療. 2009. 20. p.115.
8) 邱友文. 喜傷心析疑. 湖北中醫雜誌. 1982. 3. pp.33-34.
9) 이고은, 유영수, 강형원. 東醫寶鑑에 나타난 칠정의 대한 연구-病機를 중심으로-.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14. 25(1). pp.85-107.
10) 유동인, 유희영. 七情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2. 3(1). pp.3-24.

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하다고 느낄 때 발현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쁨은 처음에는 자신이 하지 못하던 것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계속 시도하여 성취했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이기도 하다.[12] 기쁨은 나의 세계와 외부 세계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고[13], 즐거움은 좀 더 탐미함이 깊고 내밀함에서 유래되는 감정이다. 이는 노여움이나 화냄이 밖으로부터 뭔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여 배격하거나 차단하려는 감정인 것과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素問·宣明五氣篇』에서 "精氣가 心에 아우르면 기쁘다."[14]라고 하였는데, 이는 精氣가 肝心脾肺腎五臟 중에서 心에 몰리고 집중되면 火처럼 炎上하는 성질의 감정인 喜가 발현됨을 의미한다. 기쁨이 나타나면 얼굴이 상기되거나 빛나고 생기와 활기가 넘치게 되며, 눈이 빛나고 생기를 띠며, 어깨춤이 나오고,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설레며,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다리가 가뿐해지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등[15] 火의 象[16]이 나타난다. 『禮記·樂記』에서도 "그 기쁜 마음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그 소리가 발하여서 흩어진다."[17]라고 하였다. 『素問·擧痛論』에서는 감정에 따른 氣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기뻐하면 氣가 이완된다."[18]라고 하였고, "기뻐하면 氣가 조화롭고 뜻이 달성되며, 營衛가 통하고 순조로우므로 氣가 이완된다."[19]라고 했는데, 이는 기쁨의 감정이 발현되었을 때 긴장되어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氣가 이완되고 느슨해지며, 긴장으로 부조화 상태에 있던 氣가 기쁨이라는 감정의 발현으로 인하여 氣가 조화롭게 되고, 마음에 품은 뜻이 이루어지고 달성되며, 營衛가 순조롭게 통하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생리적 喜를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素問·調經論』에서는 『素問·擧痛論』과 다르게 "기뻐하면 氣가 내려간다."[20]라고 했는데, 이는 기쁨의 감정이 발현됨으로 인하여 긴장이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氣가 차분해져 가라앉는 것으로써 氣가 이완된 뒤에 氣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 以上에서 생리적 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기쁨은 五行 중 火에 배속되어 火의 象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발산된 후에 氣가 전반적으로 이완되거나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는 시간적 先後라고 생각된다.

2) 병리적(부정적) 喜

기쁨의 감정이 발현되면 氣가 이완되고 차분해져 가라앉는다고 했는데, 기쁨의 감정이 긴장을 완화할 정도로 적절하게 발현되면 좋지만, 과도하면 病이 될 수도 있다. 『中庸』에서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의 감정을 아직 표현하지 않은 것을 中이라고 일컫고, 표현하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고 일컫는다."[22]라고 하여 감정을 과하지 않고 그 상황에

11) 강옥선. 윌리엄 블레이크의 기쁨의 시학 읽기. 문학과 종교. 2011. 16(3). pp.1-21. 강옥선은 기쁨은 현재의 혹은 앞으로 선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의 빛으로 지적인 속성을 지녔으며, 선함을 향한 동기라는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12) 조석환.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한 기본정서 분류법으로서 七情의 의미와 가능성 탐색. 초등도덕교육. 2015. 47. pp.249-273. 조석환은 喜를 이득이 발생하거나 성공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기쁨, 유쾌함, 희열이라고 하였다.

13) 이창봉. 은유를 통한 기쁨의 이해. 인간연구. 2011. 20. pp.197~229. 이창봉은 기쁨이 개인이 내부적으로 홀로 느끼는 독립적인 감성 현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접촉 속에서 느끼는 역동적이며 전파성과 사회성이 강한 성격의 것이라고 하였다.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92. "精氣幷於心則喜."

15) 임지룡. '기쁨'과 '슬픔'의 개념화 양상. 국어학. 2001. 37. pp.219-249.

16) 박정련. 국악치유론 기반을 위한 동양학적 이론 근거 모색. 국악원논문집. 2012. 26. pp.49-80. 박정련은 "기쁜 감정은 한 순간 기쁨을 느낄 때 상기되어 하늘을 날 듯 가벼운 상태, 즉 급작스러운 변화를 지니므로 '火'의 분열하고 발산하는 기세와 닮아있다."고 했다.

17) 著者未詳. 禮記. 서울. 保景文化社. 1991. p.455. "其喜心感者, 其聲發以散."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46. "喜則氣緩."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46. "喜則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矣."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18. "喜則氣下."

21) 白裕相.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1). pp.36-54. 白裕相은 喜가 氣를 외부로 발산, 소통하여 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운을 가라앉히게 된다고 했다.

딱 들어맞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했는데, 이에 反하여 만약 어떤 하나의 감정이 폭급하거나 정도가 세게 나타나면 그 감정으로 인하여 五藏을 傷하게 할 수가 있다. 또한 실제로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한다면 이도 병리적인 喜에 해당할 것이다.

怒喜思悲恐의 감정 중 喜에 대해 『素問·陰陽應象大論』과 『素問·疏五過論』에서 "폭급하게 기뻐하면 陽을 손상시킨다."[23]라고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과 『素問·五運行大論』에서 "기쁨은 心을 손상시킨다."[24]라고 하였으며, 『靈樞·本神篇』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에는 神이 흩어져 간직되지 않는다."[25]라고 하여 폭급하게 나타나는 기쁨의 감정이 陽을 傷하게 할 수가 있으며, 기쁨이 心을 傷하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경우에 神이 흩어져서 갈무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暴喜傷陽", "喜傷心", "喜樂者, 神憚散而不藏."은 기쁨의 감정이 발현되었을 때 傷陽하기도 하고, 傷心하기도 하며, 神憚散하는 등 손상 받는 정도의 차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명확하지가 않다. 다만 이 중 "暴喜傷陽"이 기쁨의 감정이 폭급하게 나타나서 그 손상되는 정도가 제일 크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過喜나 暴喜 외에도 일반인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감정노동자들이 직업의 특성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이는 것도[26] 병리적 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心의 작용, 기능, 특징[27]

心은 五臟六腑 중에서 君主의 역할을 하여 君主之官이라고 하며, 神明이 나와 心主神明이라고 한다. 陰陽 속성으로 따지면 陽中之陽에 속하고, 五行으로 배속하면 火에 속하며, 血脈을 주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君主之官, 心主神明

『素問·靈蘭秘典論』과 『素問·刺法論』에서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28]이라고 하였고, 『素問·本病論』에서 "心爲君主之官, 神明出焉."[29]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心이 五臟六腑 중에서 君主와 같은 역할을 하여 神明으로써 다른 臟腑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心이 君主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다른 臟腑들도 편안하지만, 心이 君主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臟腑들도 위태로워지게 된다.[30] 감정의 동요가 心에 영향을 미치면 君主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五臟六腑도 함께 흔들리게 되고[31], 五臟六腑의 큰 주인으로써 견고하던 心이 邪氣를 용납하면 心이 傷하여 그 안에 갈무리되어 있던 神이 떠나가 죽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32]. 君主之官인 心은 神明을 내어 다른 臟腑를 이끌어 가는데, 『素問·宣明五氣』와 『素問·調經論』과 『靈樞·九鍼論』에서 "心藏神"[33]이라고 하였고, 『靈樞·本神』에서 "心藏

22) 金赫濟 校閱. 原本備旨大學中庸. 서울. 明文堂. 1995. p.9.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3, p313. "暴喜傷陽."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4, p.238. "喜傷心."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8. "喜樂者, 神憚散而不藏."
26) 김상인. 청년 감정노동자의 이해 : 인문·예술치료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예비연구 토론. 2018년도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pp.177-181.
27) 방정균, 이용범. 《黃帝內經》의 心의 槪念과 藏象에 대한 硏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0. 13(1). pp.269~303. 心의 작용, 기능, 특징을 씀에 있어서 上記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4, p.286.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92.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4. "凡此十二官者, 不得相失也. 故主明則下安, 以此養生則壽, 歿世不殆, 以爲天下則大昌. 主不明則十二官危, 使道閉塞而不通, 形乃大傷, 以此養生則殃, 以爲天下者, 其宗大危, 戒之戒之."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59. "心者, 五臟六腑之主也, 目者, 宗脈之所聚也, 上液之道也, 口鼻者, 氣之門戶也. 故悲哀愁憂則心動, 心動則五臟六腑皆搖, 搖則宗脈感, 宗脈感則液道開, 液道開, 故泣涕出焉."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99.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臟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脈, 脈舍神."[34]이라고 하여 脈을 매개로 心이 神을 갈무리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靈樞·邪客』에서는 "心者, 五藏六府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35]라고 하여 心이 정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고 하였으며, 『靈樞·大惑論』에서도 "心者, 神之舍也."[36]라고 하였다.

2) 陽中之陽

心의 陰陽 속성과 관련해서는 『素問·金匱眞言論』에서 心을 陽中之陽[37]이라고 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과 『靈樞·九鍼十二原』과 『靈樞·陰陽繫日月』에서 陽中之太陽[38]이라고 했으며, 『素問·脈要精微論』과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는 心의 陽的인 속성을 牡藏[39]이라고 하였다. 이는 心이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40] 心을 陰陽 속성으로 표현했을 때 陽中之陽이라고 한다면 이를 五行으로 치환하여 말하면 火가 되는데,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 血生脾, 心主舌. 其在天爲熱, 在地爲火, 在體爲脈, 在藏爲心, 在色爲赤, 在音爲徵, 在聲爲笑, 在變動爲憂, 在竅爲舌, 在味爲苦, 在志爲喜. 喜傷心, 恐勝喜."[41]라고 했고, 같은 편에서 "雷氣通於心."[42]이라고 했으며, 『靈樞·熱病』에서 "火者, 心也."[43]라고 했고, 계절로는 여름의 무성함과 연관지어 말하였다[44]. 心은 陽중에서도 陽으로 그 氣가 주로 表로 발현되어 『素問·刺禁論』에서 "心部於表."[45]라고도 했다.

3) 心主血脈

心은 筋·脈·肌肉·皮毛·骨의 五體 중 脈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녀 心主血脈이라고 그 기능을 표현하는데, 『素問·五藏生成』에서 "心之合脈也, 其榮色也, 其主腎也."[46]라고 하였고, 『素問·平人氣象論』에서 "臟眞通於心, 心藏血脈之氣也."[47]라고 했으며, 『素問·痿論』에서 "心主身之血脈."[48]이라고 했고, 『靈樞·本神』에서 "心藏脈, 脈舍神."[49]이라고 했으며, 『靈樞·五色』에서 "心合脈"[50]이라고 했고, 『靈樞·九鍼論』에서 "心主脈"[51]이라고 했다. 한편 『素問·脈要精微論』에서 "夫脈者, 血之府也."[52]라고 하였고, 『素問·八正神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92, p.2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33.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9.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99.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42.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0. "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6.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脈, 爲陽中之太陽, 通於夏氣."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3, p196. "陽中之太陽, 心也.", "心爲陽中之太陽."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06.
40) 이승현, 백상용. 生命律動과 聲音의 관계에 대한 硏究.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2. 8(1). pp.27~43. 이승현과 백상용은 火氣가 分裂力을 내재하고 있고, 陽中之陽氣로 용출한 陽氣가 사방으로 분열하여 발산하는 기세를 띠며, 火氣의 發散으로 극성해지는 陽化는 전신으로 精神氣血 등을 산포하여 온 몸에 활력을 주어 율동을 촉진하고, 心의 火氣는 分裂力으로 精氣를 인체의 모든 말단부위까지 포산한다고 하였다.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4.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4.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38.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88. "心主夏, 手少陰太陽主治, 其日丙丁,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90.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9.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5.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66.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9.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28.
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33.

明論』에서 "血氣者, 人之神, 不可不謹養."[53]이라고 했는데, 이는 血脈이 心안에 갈무리되어 있는 神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Ⅲ. 考察

1. 氣와 神의 관계[54]

『素問·擧痛論』에서 "기뻐하면 氣가 이완된다."[55], "기뻐하면 氣가 조화롭고 뜻이 달성되며, 營衛가 통하고 순조로우므로 氣가 이완된다."[56]라고 했고, 『靈樞·本神篇』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에는 神이 흩어져 간직되지 않는다."[57]라고 하여 기쁨의 감정이 발현될 때 氣가 이완되기도 하고, 神이 흩어지기도 함을 말하였는데, 上記 문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氣와 神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氣와 神은 상호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다.[58] 『素問·上古天眞論』에서 "무릇 상고시대에 성인들이 백성들을 교화할 적에 모두 일컫기를 虛邪와 賊風을 피함에 때가 있으니, 마음을 고요히 하고 편안하게 하여 욕심을 내지 않으면 眞氣가 따르고, 精神이 안에서 지켜지니, 病이 어찌 따라오겠는가?"[59]라고 하여 眞氣와 精神의 관련성을 언급하였고,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氣는 정밀하면 神을 기르고, 부드러우면 筋을 기른다."[60]라고 하여 精한 陽氣가 神을 자양함을 언급하였으며,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五味가 입에 들어가서 腸胃에 간직되고, 味를 간직했다가 이로써 五氣를 기르니, 氣가 조화롭게 되고 생성되며, 津液과 서로 이루어 神이 이에 저절로 생겨난다."[61]라고 하여 조화로운 氣가 神의 생성을 도움을 말하였고, 『靈樞·小鍼解』에서 "神은 正氣이다."[62]라고 하여 神이 바른 氣임을 말하였다. 이로써 氣의 상태가 정밀하고 조화로우며 올바를 때 神이 자양됨을 알 수 있다.

한편 氣의 상태가 안 좋으면 神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神의 상황에 따라 氣도 함께 변화함을 설명한 구절들도 보였는데, 『素問·湯液醪醴論』에서 "즐기고 욕심내는 것이 다함이 없어서 걱정과 근심이 그치지 않고, 精氣가 느슨해지고 무너져서 營氣가 원활하지 않고, 衛氣가 없어지므로 神이 떠나가서 병이 낫지 않습니다."[63]라고 하여 氣가 精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神도 떠나감을 언급하였고, 『素問·擧痛論』에서 "놀라면 心이 의지하는 것이 없고, 神이 돌아갈 곳이 없으며, 사려가 정해지는 곳이 없으므로 氣가 어지러워진다."[64]라고 하여 神이 돌아갈 곳이 없어 방황하면 氣도 이에 따라 어지러워짐을 말하였다. 『素問·痺論』에서는 "陰氣가 고요하면 神이 간직되고, 조동하면 소모되고 망실된다."[65]고 하여 氣의 動靜에 따라 神의 존망이 결정됨을 언급하였다. 이상 『內經』에서 氣와 神의 관계를 언급한 문장들을 고찰한 결과 기뻐하여 氣가 이완될 때에는 神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57.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01.
54) 丁彰炫. 神에 대한 硏究.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35-38. 氣와 神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上記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46. "喜則氣緩."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46. "喜則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矣."
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8. "喜樂者, 神憚散而不藏."
58) 丁彰炫. 神에 대한 硏究.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50-53.
5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1. "夫上古聖人之敎下也, 皆謂之虛邪賊風, 避之有時, 恬惔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6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6. "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
6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6.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6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2. "神者, 正氣也."
6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49. "嗜欲无窮, 而憂患不止, 精氣弛壞, 營泣衛除, 故神去之而病不愈也."
6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46. "驚則心無所倚,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
6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62. "陰氣者, 靜則神藏, 躁則消亡."

도 잘 갈무리되지 못하고 이완되어 흩어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氣가 이완되면 긴장된 마음이 풀리면서 저절로 웃게 되며, 氣緩은 神散까지 유도하여 웃음이 그치지 않는 笑不休와 심지어는 狂症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66]

2. 傷心과 傷陽

기쁨의 감정이 발현되는 것과 관련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과 『素問·五運行大論』에서 "기쁨은 心을 傷한다."[67]라고 했고, 『素問·陰陽應象大論』과 『素問·疏五過論』에서 "폭급하게 기뻐하면 陽을 傷한다."[68]라고 했는데, 傷心과 傷陽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록 『素問·金匱眞言論』에서 心을 陽中之陽[69]이라고 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과 『靈樞·九鍼十二原』과 『靈樞·陰陽繫日月』에서 陽中之太陽[70]이라고 하여 心이 陽中之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傷心과 傷陽은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약간 서로 다른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손상을 일으키는 기쁨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기쁨(喜)이라고 한 것과 폭급하게 기쁨(暴喜)이라고 한 것은 기쁨의 감정이 발현됨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暴喜가 발현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평상시에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 喜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현되지 않다가 갑자기 자기도 예상 못한 기쁨의 상황을 맞이하여 기쁨이 마치 폭포수처럼 넘쳐흐르는 것으로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이산가족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거나 로또가 당첨되어 일확천금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暴喜傷陽"이라고 한 것에 대해 王冰은 "폭급하게 갑자기 氣가 내려가면 陽을 傷한다."[71]라고 하여 傷陽의 陽을 기쁨의 감정으로 氣가 내려가서 上焦 부위의 陽을 상하는 것으로 보았고, 張介賓은 『類經·陰陽類·陰陽應象』에서 "폭급하게 기뻐하면 心氣가 이완되고 神이 달아나므로 陽을 상한다."[72]라고 하여 陽을 心이 간직하고 있는 神으로 보았으며, 章楠은 『靈素節注類篇』에서 "폭급하게 기뻐하면 神이 방탕하고 氣가 늦춰져 陽을 상한다."[73]라고 하여 폭급한 기쁨의 감정이 氣와 神과 같은 陽性을 지닌 요소를 상하게 한다고 보았고, 高世栻은 "갑작스럽고 폭급하게 기뻐하면 내 몸의 陽氣를 상한다."[74]라고 하여 傷陽의 陽이 몸 전체의 陽氣임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주석가들마다 傷陽의 陽을 보는 관점이 약간씩 차이가 났는데, 陽을 좁은 범위로 해석하여 氣, 神 혹은 上焦의 陽으로 보는 관점이 있었고, 陽을 넓은 범위로 해석하여 몸 전체의 陽氣로 보는 관점이 있었다.

논자는 喜傷心의 傷心은 火性의 감정인 喜의 발현으로 인하여 心이 국소적으로 손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暴喜傷陽의 傷陽은 좁게는 氣, 神 등 몸의 陽的인 속성을 지닌 요소의 손상뿐만이 아니라 넓게는 몸 전체의 陽氣도 함께 손상시켜 그 손상정도가 喜傷心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3. 喜傷心의 病機

기쁨이라는 감정은 자신이 소망하는 일을 이루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

6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8, p.134. "肺喜樂無極, 則傷魄, 魄傷則狂, 狂者意不存人, 皮革焦, 毛悴色夭, 死於夏.", "狂者多食, 善見鬼神, 善笑而不發於外者, 得之有所大喜."

6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4, p238. "喜傷心."

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3, p313. "暴喜傷陽"

6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0. "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7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6.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脈, 爲陽中之太陽, 通於夏氣."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3, p196. "陽中之太陽, 心也.", "心爲陽中之太陽."

71) 孫國中 點校. 重光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62. "喜則氣下, …中略…, 暴卒氣下則傷陽."

72) 張介賓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編. 改訂版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54. "暴喜則心氣緩而神逸, 故傷陽."

73) 章楠 編注, 方春陽·孫芝齋 點校. 靈素節注類篇.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p.211-212. "暴喜則神蕩氣弛而傷陽."

74) 高士宗 著, 孫國中·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3. p.36. "猝暴而喜則傷吾身之陽氣."

족하다고 느낄 때 발현되는 감정으로 기쁨의 감정은 긍정적인 기쁨(생리적 喜)과 부정적인 기쁨(병리적 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기쁨은 氣가 조화롭게 되고, 營衛가 통하여 몸의 활기가 생기는 것으로 긴장되었던 몸의 氣를 느슨하게 해주고 신체의 氣血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기쁨은 傷心하지 않고, 오히려 활력으로 작용하여 자신이 하는 일에 동기부여를 하여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에 빛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論語·學而』에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는가?"[75][76]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기쁨이 바로 긍정적이고 생리적인 기쁨이다.

반면에 기쁨에는 부정적인 기쁨도 존재하는데, 부정적인 기쁨은 기쁨이 너무 과도하거나 폭급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상황에 맞지 않게 억지웃음을 지어내거나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기쁨과 부정적인 기쁨의 공통점은 모두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기쁨의 모양새가 밖으로 표출되고 기뻐함으로 인하여 氣가 이완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과 『素問·五運行大論』에서 "喜傷心"[77]이라고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과 『素問·疏五過論』에서 "暴喜傷陽."[78]이라고 했으며, 『靈樞·本神篇』에서 "喜樂者, 神憚散而不藏.."[79]이라고 했는데, "喜傷心", "暴喜傷陽", "喜樂者, 神憚散而不藏."에 대해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해 본다면 "喜傷心"은 기쁨의 감정이 발현되지만 그 감정의 발현이 氣血 순환을 도와 혈색을 좋게 하고 미소를 띠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한계선을 지나면 火性의 감정인 喜가 陽中之陽인 心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국소적으로 心을 손상시키고, "暴喜傷陽"은 기쁨의 감정이 급작스럽고 폭급하게 발현되면 좁게는 氣, 神 등 몸의 陽的인 속성을 지닌 요소의 손상뿐만이 아니라 넓게는 몸 전체의 陽氣도 손상되어 손상정도가 喜傷心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된다. "喜樂者, 神憚散而不藏."은 기쁨의 감정이 氣를 이완시키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氣와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神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神이 분산되고 갈무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80] 『靈樞·本神』에서 "肺喜樂無極, 則傷魄, 魄傷則狂, 狂者意不存人, 皮革焦, 毛悴色夭, 死於夏."[81]라고 하여 喜樂이 다함이 없이 지속되면 狂症이 나타남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喜樂者, 神憚散而不藏."의 구체적인 병증 예시라고 할 수 있다. "喜樂者, 神憚散而不藏."은 氣가 이완되는 정도에서 한층 더 나아가 神이 잡도리되거나 묶이지 않고 흩어져 갈무리되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므로 여기서의 喜는 生理的인 喜이기보다는 病理的인 喜라고 추측할 수 있고, "暴喜傷陽"이 좁게는 氣, 神 등 몸의 陽的인 속성을 지닌 요소의 손상뿐만이 아니라 넓게는 몸 전체의 陽氣도 함께 손상시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손상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過喜나 暴喜가 肝, 脾, 肺, 腎이 아닌 心을 주로 傷하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첫째 心은 牡臟이며, 陽中之陽인 太陽이고, 君主之官으로 神明이 나와 다른 臟腑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며, 그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밖으로 펼쳐져 있어서 자신의 太陽性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는 金氣 또는 水氣를 필요로 하는데, 기뻐하면 기운이 이완되고 심하면 神이 흩어지는 등 火의 象이 나타나 太陽性을 유지함에 방해가 된다. 張介賓은 『素問·擧痛論』의 喜 관련 주석에서 "氣와 脈이 조화로우므로 뜻이 펼쳐져 통달하

75) 金赫濟 校閱. 論語集註. 明文堂. 2000. p.7. "子曰學而時習之, 不亦說乎."
76) 박길수. 왕양명 철학에서 도덕 감정과 즐거움의 문제. 양명학. 2014. 38. pp.5~50. 박길수는 양명의 말을 인용하여 수시로 익히는 것이 마음의 본체를 구하여 회복하려는 것이고, 기쁨의 감정을 心의 본체가 회복되는 표징으로 간주하였다.
7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4, p.238.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3, p313.
7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8.
80) 白裕相. 音聲과 五臟의 관계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2). pp.97-107. 白裕相은 이에 대해 陰氣가 부족하여 心精이 갈무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8.

고, 榮衛가 통하고 순조로우므로 氣가 느리고 이완된다. 그러나, 기쁨이 심하면 氣가 과도하게 이완되어 점점 흩어짐에 이르게 되므로 「調經論」에서 말하기를, 기뻐하면 氣가 내려간다고 했고, 「本神篇」에서 말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에는 神이 흩어져 갈무리되지 않는다고 한 의미를 가히 알 수가 있다."[82]라고 하여 기뻐함의 정도가 심하면 氣가 과하게 이완되어 점점 흩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景岳全書·雜證謀·論虛損病源』에서 "폭급한 기쁨이 과도하게 심하면 陽을 상해서 神氣가 이로써 소모되고 흩어지며, 혹 기쁨이 방종하여 절도가 없으면 음탕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 정신을 피로하고 고갈하게 만드니, 藥으로 구할 수가 없다."[83]라고 하여 暴喜가 神氣를 소모시키고 흩어지게 하며, 무절제한 縱喜가 정신을 피로하고 고갈하게 한다고 하였다. 한편 『素問·藏氣法時論』에서 "心欲軟, 急食鹹而軟之, 用鹹補之, 甘瀉之."[84]라고 했는데, 心이 부드럽고자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부의 긴장을 유지하여 맥박을 유지하면서도 물처럼 부드러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鹹味로 軟堅하여 補하게 된다. 甘味를 쓰게 되면 甘以緩之하여 심장이 이완됨으로써 심장에 손상을 가져와 부드러움과 반대 방향이므로 瀉法이 된다. 또 같은 편에서 "心苦緩, 急食酸以收之."[85]라고 했는데, 이는 心이 太陽性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완될 경우에 酸味로 수렴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기쁨의 감정이 과도함으로 인하여 몸의 陽氣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費伯雄의 『醫醇賸義』에서는 "喜則傷心, 此爲本臟之病, 過喜則陽氣太浮, 而百脈開解, 故心臟受傷也."[86]라고 하여 기쁨이 과도하면 陽氣가 매우 浮越하게 되어 몸의 모든 脈이 열리고 풀어져 心臟이 손상을 받는다고 하였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兩者不和, 若春無秋, 若冬無夏."[87]라고 하였는데, 陰陽의 요체는 陽氣가 빽빽해야 견고한 것으로, 기쁨이 과도하면 빽빽한 陽氣를 이완시켜 느슨하게 함으로써 견고함을 손상시킨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傷心하는 것을 陽氣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쁨의 감정이 과도하면 陽氣가 浮越하여 내부적으로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견고함이 무너져서 傷心할 수도 있다. 또한 "暴喜傷陽"의 傷陽은 밀도가 높은 陽을 폭급한 喜의 발현으로 인하여 성기게 함으로써 陽의 성질을 손상시키는 것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기쁨은 기쁨이 과도하거나 폭급한 경우 외에도 상황에 맞지 않는 기쁨도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 『中庸』에서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의 감정을 아직 표현하지 않은 것을 中이라고 일컫고, 표현하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고 일컫는다."[88]라고 하여 감정을 과하지 않고 그 상황에 딱 들어맞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했는데, 일반인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감정노동자들이 직업의 특성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이는 것은[89] 氣血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 氣를 억지로 이완시킴으로써 氣의 정체를 불러온다. 『素問·藏氣法時論』에서 "心欲軟, 急食鹹而軟之, 用鹹補之, 甘瀉之."[90]라고 하여 甘味를 써서 甘以緩之하는 것을 瀉法으로 인식하였고, 같은 편에서 "心苦緩, 急食酸以收之."[91]라고 하여 心이 이완되는

82) 張介賓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編. 改訂版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570. "氣脈和調, 故志暢達, 榮衛通利, 故氣徐緩. 然喜甚則氣過於緩, 而漸至渙散, 故調經論曰, 喜則氣下, 本神篇曰, 喜樂者, 神憚散而不藏, 義可知也."

83)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309. "暴喜過甚則傷陽, 而神氣因以耗散, 或縱喜無節則淫蕩流亡, 以致精神疲竭, 不可救藥."

8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88.

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88.

86) 曹炳章 編. 醫醇賸義(中國醫學大成續集 29).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95.

8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7.

88) 金赫濟 校閱. 原本備旨大學中庸. 서울. 明文堂. 1995. p.9.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89) 김상인. 청년 감정노동자의 이해 : 인문·예술치료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예비연구 토론. 2018년도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pp.177-181.

9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88.

9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것을 괴로워하므로 급히 酸味를 먹어 수렴시킨다고 했다. 이는 心이 과도하게 이완되는 것을 병증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 結論

이상에서 "喜傷心"의 病機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쁨의 감정이 과도하게 발현되면 氣가 이완될 뿐만 아니라, 氣와 상호 연관을 맺고 있는 神에도 영향을 미쳐서 神이 흩어지게 된다.
2. 傷心은 火性의 감정인 喜의 발현으로 인하여 心이 국소적으로 손상되는 것, 傷陽은 좁게는 氣, 神 등 몸의 陽的인 속성을 지닌 것의 손상뿐만이 아니라 넓게는 몸 전체의 陽氣를 손상시켜 손상정도가 喜傷心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된다.
3. "喜樂者, 神憚散而不藏."은 기쁨의 감정이 氣를 이완시키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氣와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神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神이 분산되고 갈무리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暴喜傷陽"보다는 그 손상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4. 過喜나 暴喜는 神氣의 분산을 일으켜 心이 太陽性을 유지함에 방해가 되거나 陽氣가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견고함이 무너짐으로써 傷心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억지웃음은 氣를 과도하게 이완시켜 정체되게 함으로써 傷心한다.

References

1. 강옥선. 윌리엄 블레이크의 기쁨의 시학 읽기. 문학과 종교. 2011. 16(3).
2. 高士宗 著, 孫國中·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學苑出版社. 2003.
3. 邱友文. 喜傷心析疑. 湖北中醫雜誌. 1982. 3.
4. 김상인. 청년 감정노동자의 이해 : 인문·예술치료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예비연구 토론. 2018년도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5. 金赫濟 校閱. 原本備旨大學中庸. 서울. 明文堂. 1995.
6. 金赫濟 校閱. 懸吐釋字具解論語集註. 明文堂. 2000.
7. 박길수. 왕양명 철학에서 도덕 감정과 즐거움의 문제. 양명학. 2014. 38.
8. 박정련. 국악치유론 기반을 위한 동양학적 이론 근거 모색. 국악원논문집. 2012. 26.
9. 방정균, 이용범.《黃帝內經》의 心의 槪念과 藏象에 대한 硏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0. 13(1).
10. 白裕相. 音聲과 五臟의 관계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2).
11. 白裕相.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1).
12. 聶紹通. 論情志致病因素-喜. 中外醫療. 2009. 20.
13. 孫國中 點校. 重光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8.
14. 유동인, 유희영. 七情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2. 3(1).
15. 이고은, 유영수, 강형원. 東醫寶鑑에 나타난 칠정의 대한 연구-病機를 중심으로-.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14. 25(1).
16. 이승현, 백상용. 生命律動과 聲音의 관계에 대한 硏究.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2. 8(1).
17. 이창봉. 은유를 통한 기쁨의 이해. 인간연구. 2011. 20.
18. 임지룡. '기쁨'과 '슬픔'의 개념화 양상. 국어학. 2001. 37.
19. 張介賓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編. 改訂版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20.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景岳全書. 서

1985. p.88.

울. 法仁文化社. 2007.
21. 章楠 編注, 方春陽·孫芝齋 點校. 靈素節注類篇.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22. 著者未詳. 禮記. 서울. 保景文化社. 1991.
23. 丁彰炫. 神에 대한 硏究.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24. 曹炳章 編. 醫醇賸義(中國醫學大成續集 29).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25. 조석환.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한 기본정서 분류법으로서 七情의 의미와 가능성 탐색. 초등도덕교육. 2015. 47.
26. 蔡良, 張虹. 論喜傷心. 世界最新醫學信息文摘. 2018. 18(86).
27. 한방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編著. 한방병리학. 서울. 한의문화사. 2009.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